

전업규모 양돈장의

당면 문제점과 그 대책



김 영 옥
(한국양돈개발원장)

1. 현황

가. 환경여건

우리나라 전업규모 양돈장들의 대부분이 농가 부업 양돈에서 그 사육규모만 커진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그래서 대개 마을안에 위치해 있거나 그 주변에 위치해 있고 마을 단위로 집단화, 단지화 되어 있다.

조금 다른 형태는 서울 등지의 외부 사람이 임야나 농토를 매입하여 이주했거나 관리인을 고용하여 위탁관리를 하는 양돈장들도 많다. 이 경우는 대부분 마을과 조금씩 떨어진 산골짜기 또는 들판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을앞 개울에서 배추 등 채소를 씻어 먹던 것은 이미 옛얘기가 되었고, 곳에 따라서는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우물, 그리고 심지어는 상수도원까지 오염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여름

에는 파리와 모기가 기승을 부려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심각한 폐수처리문제가 대두되고, 환경보전법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전공공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나. 사육규모와 시설

대개 100두에서 500두까지의 규모가 대중을 이루지만, 2~3천두의 큰 규모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개 작은 규모에서 출발하여 양돈호황에 힘입어 차차로 그 사육규모를 늘려 지금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돈사의 형태도 각양각색이다. 제한된 부지에 돈사를 뽁뽁하게 들어 채운 상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돈사배열도 효율적인 배열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돈사의 외관도 가지가지다. 보온덮개돈사, 파이프를 이용한 여러 모양의 돈사, 함석지붕, 텐트지

붕, 스프레트지붕, 블록돈사, 철골돈사 등 다양하다. 돈사 형태도 재래식 돈사에서 무창 돈사까지 동원되어 있다. 남쪽 지방에는 완전 개방 돈사가 많고, 북쪽으로 올수록 벽을 많이 쌓거나, 이중 벽, 이중 창문, 심지어 무창 돈사까지 볼 수 있다.

시설면에서도 재래식 돈사들이 있는가 하면 스크레퍼와 자동급이시설까지 갖춘 현대식 시설들이 공존하고 있다.

돈사 내부의 구조도 완전 재래식이 있는가 하면, 기업양돈장들의 모방돈사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돈사 형태가 도입되어 있다.

예를 들면 덴마크식돈사, 케이지돈사, 스크레퍼돈사, 톱밥발효돈사, 쇼벨제분돈사, 미국식, 구라파식 등 온갖 형태의 돈사구조나 방식이 도입되어 복사판, 모조판 또는 복합개정판까지 있어 흡사 세계 돈사구조의 모델 전시장 같다. 뿐만 아니라 내부시설도 세계축산기구 박람회장과 같다. 각종 환기시설을 보아도 그렇다. 무동력배풍기, 깔러리, 강제환기팬들이 그렇고 닥트시설 그리고 각종 외제 타이머 등까지 동원되어 있다. 그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수입했거나 우리나라에서 복사제작한 전 세계의 축산기구가 나열되어 있다.

다. 사육형태

생산에서 출하까지 하는 일관경영이 많고, 비육만 전문으로 하는 자돈입식 비육형태도 많다. 또 기업양돈장 주변에서 계약생산 또는 위탁사육의 형태도 최근에 점차 증가하고 있다.

라. 사양기술과 사양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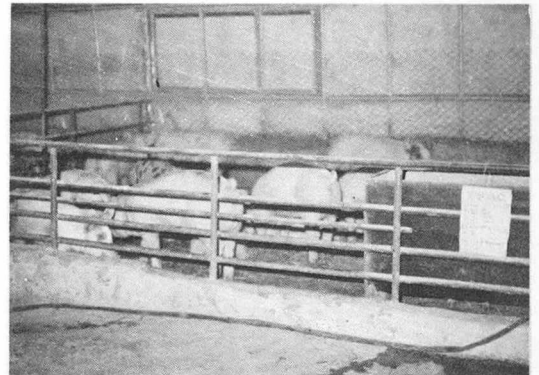
한마디로 돼지를 잘 키우는 사람은 잘 키우고 못 키우는 사람은 못 키우는 엄청난 기술수준차가 전국 지역에 따라, 또는 개인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그 사양기술들도 자기 나름대로 몇년

간 경험에 의한 것, 책이나 각종 세미나를 통해 읽고 들은 것, 국내외의 유명한(?)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은 것 등이 그 양돈장 나름대로의 기술수준을 형성해 주고 있다. 심지어는 양돈에 전혀 지식이 없어도 양돈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돈을 벌어난 사람도 많다.

전업규모 양돈장들의 사양성적도 그 기술수준차와 같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당산자수(포유개시두수)가 8두가 채 안되는 양돈장이 있는가 하면 평균 10두 이상을 유지하는 우수한 양돈장도 있다.

육성율도 80% 미만에서 98%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 90kg 도달일령도 생후 140~200일까지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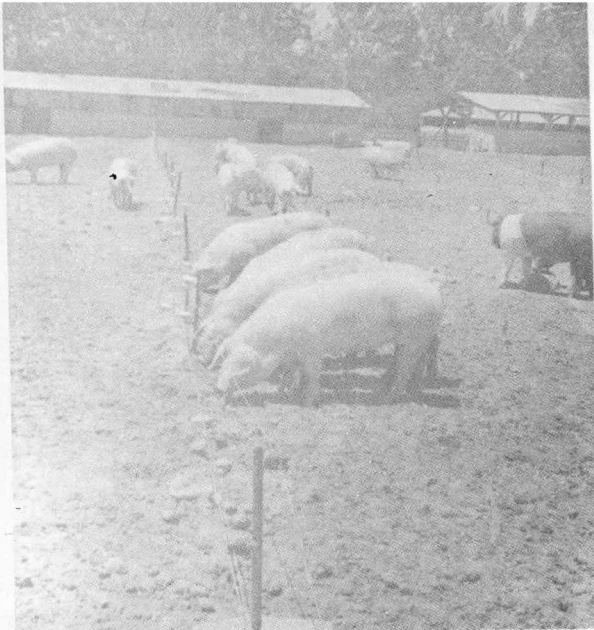
양돈장마다 출하된 상품(규격돈)의 경락가가 큰 차이를 보이듯 그 육질의 차는 너무나도 크다. 뿐만 아니라 모돈 회전율과 사료요구율 등의 기술지표, 그리고 생체 kg당 총 생산원가의 차이도 엄청나다.



마. 위생관리(질병관리) 및 기술수준

우리나라 전업양돈장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이 위생관리 즉, 질병관리라 할 수 있다. 또 가장 낙후된 부분도 질병관리 기술이라고 생각된다.

아직까지 몇 년동안 예방접종을 한번도 하지



않고도 무사히 돼지를 키워낸 정말 신기한 기술자(?)가 의외로 많음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돈콜레라 예방주사를 놓지 않고도 돼지를 잘만 키워왔는데 뭇때문에 돈들이고 고생하면서 예방주사를 놓느냐? 누구 말을 들으니까 예방주사를 놓으니까 돈콜레라도 걸리고 만병도 걸려 돼지가 다 죽더라고 하던데 왜 자꾸 백신을 하라고 하느냐며 들은척도 않거나 대들기까지 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다. 물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돈을 사거나 타 농장에서 분양받아 비육하는 사람들이다.

또 돈단독 예방주사는 전국 전업규모 양돈장들의 대부분이 생략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 이유를 침을 튀기며 설명해 낸다. 가장 기본적인 돈콜레라와 돈단독 예방접종 상태가 이러니 타 예방접종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특히 효과가 눈에 안보이는 탓인지 소독은 연중 한번도 하지 않는 농장도 있다. 구충약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돼지병에 대해서는 놀랄 정도의 견문과 학식, 그리고 나름대로의 기똥찬 비방(秘方)(?)들을 갖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예를들면 TGE는 굵기면 낫는다, 또는 “옷(칠)”을 먹이면 즉효라든가, 새끼설사에는 “맥소롱”만 먹이면 다른 약이 필요없다, 또 휴양돈

에 “설과제”만 주사하면 100% 발정이 즉시 온다는 등이다. 또 피부병에는 폐유만 바르면 된다고 “옴”이나 영양부족(주로 아연결핍)으로 생기는 부전각화증(不全角化症)에도 온 몸에 폐유를 발라 전 돼지를 시커먼 기름덩어리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 부업양돈에서 전업양돈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계시다.

반면 철저한 위생적 사양관리와 방역관리, 질병관리로 기업양돈장보다 훨씬 좋은 성적도 내고, 좋은 기술과 나름대로 정말 「노하우(Know How)」를 가진 사람 또는 양돈장도 많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우수하고 좋은 기술들이 우리 전업양돈가들에 신속히 보급되어 평준화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바. 질병상태

전업규모 양돈장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대개 다음 5가지 종류의 질병들로 시달리고 있다.

- ① 돈콜레라, 돈단독 및 TGE 등의 급성전염병.
- ② 흉막폐염 등 각종 폐염
- ③ AR, SEP, 돈적리 등 3대 경제성 소모성 질병
- ④ “옴”에 의한 피부병
- ⑤ 포유자돈 및 이유자돈 설사병

이외도 기술 수준차에 따라 다양한 질병 분포를 보인다.

어떤 농장에서는 피부병에 폐유만 바르면 낫는다고 하며 “옴”에 걸린 돼지 몸을 기름덩어리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

2. 주요 문제점

- ㉠ 환경여건이 나빠 위생관리 및 방역관리상

불리하다.

㉠ 시설상의 문제점이 많아 사육환경이 나쁘다.

㉡ 사육규모나 생산성에서 경쟁력이 약해 도태(淘汰)될 위험성이 큰 농장이 많다.

㉢ 사양기술 수준이 낮다.

㉣ 질병관리 기술이 너무 미약하다.

㉤ 현재 질병상황이 심각하다.

크게 문제점을 요약하면 위와 같으나 상기 6가지 문제점을 단시일에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현재 여건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필자는 위생적인 측면을 위주로 한 대책을 나름대로 기술하여 다소의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3. 대 책

가. 환경여건 불리에 따른 위생대책

마을 단위로 집단화, 단지화 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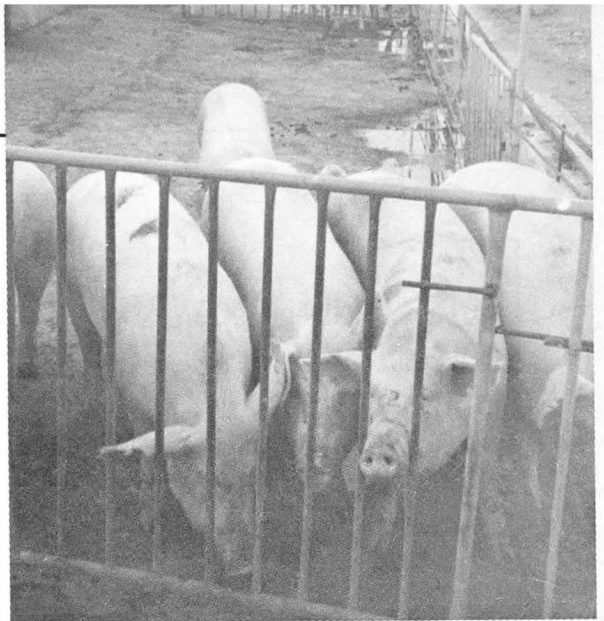
첫째, 전단지가 시간이 갈수록 질병의 오염이 심해지고 상재화 되는 것, 그리고 폐수문제이다

둘째, 외부에서 급성전염병이 침입하면 전단지가 거의 동시에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양돈장별 차단방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최선책은 양돈장을 단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로 이전하는 방법 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으면 단지 전체가 공생공사(共生共死) 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1) 전단지 양돈가들이 단합협동해야만 한다.

2) 전단지가 공동으로 오염 및 상재질병의 박멸·퇴치 대책을 강구하고 동시에 적극 시행해야만 한다.



돼지의 생리에 맞지 않아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돈사는 그 시설을 개조해 줘야

3) 폐수처리문제도 공동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해결해야 한다(공동 폐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

4) 외부침입 급성전염병 대책은 마을 또는 단지 단위의 방역차단, 또는 예방접종 및 소독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

5)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양돈장의 질병을 숨김으로써 타 양돈장에 전파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나. 시설상 문제점과 대책

돼지의 사육환경과 성력화는 돈사시설에 좌우된다.

우선 돼지의 생리에 맞지 않아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돈사는 그 시설을 개조해 주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분만사에서 모든의 잠자리(분만틀내) 쪽으로 물이나 분뇨가 흘러내려 오도록 경사가 잡혀있거나, 돈사구조가 잘못되어 배분장(排糞場)이 있는 뒤쪽에서 모든 분뇨를 모든 잠자리를 통과하여 앞쪽으로 끌어내야만 하는 구

미천한 기술을 갖고 자기 기술이 최고라는 바보같은 자신감부터 버려야 모든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기술도 단기에 완성될 것이다.

조돈사는 즉시 개조해야 한다(자돈설사를 막을 수 없음).

또 환기불량은 돼지성장 및 질병예방의 최대의 적이므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 사육규모 영세성 및 경쟁력 대책

대책은 돼지를 키울려면 최소한 천 두 단위는 넘어야 한다. 규모가 적으면 몇 년후 틀림없이 스스로 양돈을 포기하거나 주변여건이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것이다.

우선 급한 것은 조속히 내실을 기하는 길이다. 쉽게 얘기하면 좋은 기계를 빨리 확보하고(종자개량), 기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기술을 갖추고(생산성 향상), 육질이 좋은 상품을 만들되 생산원가는 싸게, 판매는 최대한 비싸게 해야 한다(생산원가절감 및 판매합리화).

라. 사양기술 및 질병관리 기술 부족 대책

무엇보다 미천한 기술을 갖고도 자기 기술이 최고라는 바보같은 자부심부터 버려야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빨리 해결되고, 기술은 단기 완성될 것이다.

- 1) 최신기술을 최대한 습득하라.
- 2) 많은 경험과 학식이 있는 지도자를 가까이 하여 철저히 배워라
- 3) 각 농장의 “노하우(Know How)”를 가능한 많이 빼내어 자기 것으로 하라.

마. 현재 농장들의 질병문제 대책

질병별로 요점만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급성전염병

① 돈콜레라

- 농장에 발생했거나 인근에 만연시 초유전 접종 및 성돈과 육성·비육돈에 보강 접종
- 외부구입돈은 구입농장 백신접종을 무시하고, 2회 접종.
- 백신 정기접종 프로그램 정립은 모돈 및 자돈의 항체가를 조사하여 확정하되 자돈의 2회 접종은 필수적임.

② 돈단독

- 철저한 예방접종.
- 면역 지속기간이 6개월 정도임(연 2회 접종)

③ TGE

- 경구투여용 백신이 최선책
- 근육 피하용 백신 사용시는 3회 접종

2) 각종 폐염

① 흉막폐염

- 이동, 합사, 투쟁 스트레스 최소화
- 이동 2~3일 전부터 이동후 10일간 항생제와 비타민제 급여
- 환기·소독 철저

② 파스튜렐라성 폐염

- 흉막폐염과 동일
- 치료시 복합설파제 유효

③ 유행성 폐염(SEP, 마이코플라스마성)

- 감염·발병 후보돈 사용금지
- 모돈에서 포유자돈전과방지(모돈사료 항생제 첨가)

3) 위축성비염 (AR)

- 후보돈은 비감염돈 선발사용
- 증상발현돈 도태원칙
(이유자돈 복단위 AR 증상 발현시 모든 도태)
- 임신돈 2회 백신 및 포유모돈 약제첨가
- 포유자돈 가나마이신 비강분무
(실시일령. 1, 3, 10, 17, 24)

4) 돈적리 (Swine Dysentery)

- 전 군 청정화 필수
- 사용약제 카바독스
- 치료시 전신 지혈제 필히 병행 사용

5) 움 (Scabies)

- Ivomec 주사

— 네구본+벤질벤조이트

- 돈체 및 돈방 동시 규제 필수
(재감염방지)

6) 설사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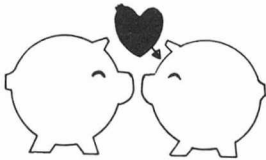
- 설사발생 요인제거(시설, 환경, 관리)
- 좋은 약제 선택 치료
- 초사료 조기숙달
- 조기발견 조기치료
- 탈수 및 전해질 균형·유지·보충
- 오염돈사 철저 소독
- 외부구입돈 주의(대장균주 차이유념)
지금까지 거론한 모든 문제점과 대책을 활용,
우리 전업양돈가들이 하루 빨리 좀 더 발전된
양돈을 하였으면 한다. *

돼지를 화목하게

돼지용 진정제

스트레스닐 주

- 스트레스닐은
1. 합사시의 싸움을 방지합니다.
 2. 수송시의 스트레스를 방지합니다.
 3. 암돼지의 유량을 높여줍니다.
 4. 암돼지의 수태율을 높여줍니다.
 5.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자 매 품	돼지용 최면제
	히프노딜주

제 조 원  JANSSEN PHARMACEUTICA

수입판매원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T. 582-9181~5